



# 뉴스읽기 뉴스읽기





# Contents

---

공모 소개 02

공모 요강 03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작 살펴보기 04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FAQ 05

2020 미디어 교육사업 한눈에 보기 06

미디어·뉴스 리터러시 이해하기 08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뉴스 리터러시란 무엇인가(김성해-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뉴스읽기 뉴스일기> 작성하는 법 18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어린이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어린이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청소년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20대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성인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실버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학부모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 <뉴스읽기 뉴스일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뉴스읽기를 주제로 한 뉴스일기장'을 배포하고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5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있는 연령별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평소 뉴스 및 미디어 이용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가이드에 따라 생활 속에서 허위정보와 뉴스를 구별하며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제1회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작성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을 참고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 이 기회에 '뉴스일기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함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일기로 기록해주세요!**

###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정보에 적절히 접근하여 분별력 있게 이용하는 능력, 뉴스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나 공감 표시하기),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뉴스를 이용하는 능력(뉴스 저작권 준수, 댓글 예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공모 주제

뉴스읽기를 주제로 한 뉴스일기장  
다양한 뉴스를 주제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작성

#### 참가 자격

개인(1인)	단체(2~3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저학년(만 7세 이상~9세 미만)</li> <li>• 어린이-고학년(만 9세 이상~13세 미만)</li> <li>• 청소년(만 13세 이상~19세 미만)</li> <li>• 성인(만 19세 이상)</li> </ul>	학교, 동아리, 가족, 작장, 동호회 등

※개인, 단체 구분 기준

예) 30명이 한 학급인 학교에서 각자 1권씩 총 30권의 일기장을 작성하여 제출 ⇒ 개인  
같이 1권의 일기장을 작성하여 제출 ⇒ 단체

####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일기장 실물)	일기장 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2020년 5월 8일~조기 소진 시 마감	2020년 5월 8일부터 상시 다운로드 가능
웹 주소를 통해 일기장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  QR 코드	재단 홈페이지, 포미(Forme)사이트, <미디어 리터러시> SNS에서 제2회 뉴스일기장 다운로드
전화: 02-2257-6389 (평일 10:00~17:00)	양식 다운로드 후 출력(A4사이즈)하여 작성

#### 작성 기간

수령일~2021년 2월 26일  
(뉴스 출처 기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30회 이상 작성)

#### 제출 방법

제출 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9일  
우편 및 방문  
- 우편 접수 시 등기 제출(마감일 소인 인정, 연락처 필히 기재)  
- 방문 접수처: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2층 미디어교육팀 앞

#### 제출 형식

1. 뉴스를 활용한 일기 형식의 공모 책자, <뉴스읽기 뉴스일기> 실물 제출
2. 일기장 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후 출력, 작성하여 실물 제출

#### 시상 내역

- 이사장상(1명 또는 1팀) • 개인(어린이-저·고학년, 청소년, 성인 부문) 금·은·동상
- 단체 금·은·동상 등 시상 예정

#### 결과 발표

2021년 3월 29일 예정. 포미(Forme) 사이트, 재단 홈페이지,  
<미디어 리터러시> SNS 통해 게시 및 개별 안내



유의사항 1) 타 공모전 수상작품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 작품 등은 응모할 수 없음. (발견 시 당선 취소 및 상장, 상금 모두 회수)

2) 응모작은 국내외의 저작권, 초상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심사 및 수상이 취소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제출한 일기장은 모두 반환하며, 수상작품에 대한 활용 권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귀속됨.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작 살펴보기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일기 작품들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상을 비롯한 많은 수상자들이 실제로 작성한 일기와 함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시각으로 뉴스를 읽고 표현했는지, 성인은 얼마나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작성했는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뉴스일기는 어땠는지, 선생님은 학교 친구들과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는지 등 분야별, 연령별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고 나만의 일기장을 만들어보세요!



포미 사이트 바로가기 ([www.forme.or.kr](http://www.forme.or.kr))

# <뉴스읽기 뉴스일기> 이런 점이 궁금해요!



## Q. 어떤 일기가 좋은 일기인가요?

기 준	내 용
일상성	뉴스일기는 개인이 일상 속에서 접하고 그로 인한 경험과 감상에 대해 기록할 때 의미 있는 내용이 됩니다.
기록성	일기와 뉴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작은 역사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꾸준히 쓰고 출처를 남기는 것으로 가치를 높여주며, 개인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완결성	뉴스를 접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경험과 감상은 독립적인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성	뉴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전달합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독창성	뉴스일기는 개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나만의 색깔을 드러낸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 Q. 어떤 뉴스를 읽어야 하나요? 그리고 읽은 뉴스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신문뿐 아니라 TV, 온라인 기사, 유튜브,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신문, 청소년 신문, 학급 신문도 좋습니다. 단, 일기에 다루는 뉴스의 제목과 매체명(온라인일 경우 URL도 포함), 발행일, 기자명을 꼭 밝혀주세요.

## Q. 뉴스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뉴스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세요.
- 동호회에서는 뉴스를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Q.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30회 이상을 작성해야 하며, 뉴스읽기와 관련한 경험을 일기에 잘 녹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그 외 참신성, 유익성, 뉴스 활용도(출처 표기, 분별력 있는 수용), 일기의 완성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2020 미디어 교육사업 한눈에 보기

##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연간 사업

사업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오프라인 연수사업				디지털 육아 학부모 연수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수(1,2기) 도서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	
온라인 연수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유·초·중등)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교사학습공동체 공모	교사학습공동체 선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년제, 평생교실) 운영						
KPF 대학 강좌 지원 사업	1학기 KPF 대학 강좌 사업 워크숍	1학기 KPF 대학 강좌 운영			1학기 KPF 대학 강좌 종료 2학기 KPF 대학 강좌 모집 공고	2학기 KPF 대학 강좌 선정 발표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공모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선정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 모집 공고	지역신문활용교육 선정	지역신문활용교육 보조금 교부		
인프라 구축 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북호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여름호 발간	
	미디어교육 효과조사			미디어교육 효과조사(운영학교 효과조사, 사업만족도 및 품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고등학생용 인정교과서 개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출판사 선정 조달청 공고 및 계약	교과서 집필		
행 사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접수 및 심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개관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시상식 공모전 일기장 배부			

사업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b>	오프라인 연수사업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수(1,2기) 도서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	디지털 육아 학부모 연수			
	온라인 연수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유·초·중등)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교사학습공동체 결과 발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제, 평생교실) 운영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종료	
	KPF 대학 강좌 지원 사업	2학기 KPF 대학강좌 사업 워크숍	2학기 KPF 대학강좌 운영		2학기 KPF 대학강좌 종료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료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료		
	미디어교육 시설 단체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단체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미디어교육 시설 단체 지원 사업 종료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종료	
 <b>인프라 구축 사업</b>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가을호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겨울호 발간	
	미디어교육 효과조사	미디어교육 효과조사(운영학교 효과조사, 사업만족도 및 품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고등학생용 인정교과서 개발	교과서 집필		인정 승인 심사 및 수정, 보완		
 <b>행 사</b>			저널리즘 주간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체커톤) 국제 MIL 주간 및 대표회의			



# 미디어·뉴스 리터러시 이해하기



#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기

정보 과잉 시대 핵심 교육 모델이자 정보복지 첫걸음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현대 사회를 미디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고 어떤 미디어에 주로 의존하는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인이라면 일단 미디어 이용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과거에도 미디어는 존재했다.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가운데는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것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미디어를 똑바로 알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의 문제는 예전에도 중요했다. 그런데 많은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능력의 중요성이 과거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의 주요 근거는 미디어의 수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에 있을까?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양적 증가는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를 늘려놓았고, 그로 인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분명한 만큼, 양적 팽창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단순히 미디어 개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 수용자가 생산·유통에 참여하는 환경

만약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신문,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의 또 다른 유형들을 더 만들어내는데 그쳤다면,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소수의 생산자가 만든 콘텐츠가 수많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며, 특정한 목표 수용자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뚜렷이 구분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각종 서비스들(SNS,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등)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안에서는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하다. 과거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위치에 머물던 수용자들이 이제는 콘텐츠의 생산, 그리고 확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생비자(prosumer)'라는 신조어가 어느새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들이 예전에는 수동적이었다가 오늘날에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술결정론이다. 이는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방송사·신문사에 제보하거나 독자투고를 하고 보도 내용 등에 항의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수용자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수용자가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대거 생겨났고, 그로 인해 실제 참여가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의 대표적 특징인 개방, 참여,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예 : 온라인 게시판, 댓글 기능, 링크 공유, 리트윗, 공감 표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수용자 참여는 과거처럼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의 전유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동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몇 번으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공유하는 행동은 적극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기술이 변화시킨 것은 수용자 또는 그들의 능동성 자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수용자 역할 변화가 만든 쟁점들

일반인들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적극적인 유형으로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해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인터넷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완전한 창작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재가공·편집해 일정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직접 생산만큼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활동으로 뉴스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주제로 한 토론이나 대화에 참여하는 행동이 있다. 이에 비해 좀 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특정 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하기(자신의 SNS·블로그 계정으로 스크랩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폐쇄형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 등), 콘텐츠 및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화나요'와 같은 공감 표시하기, 추천하기 등이 포함된다.

위에 열거한 유형들을 포함해 일반인의 콘텐츠 생산·유통 참여는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쟁점을 만들어냈다. 우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직업 언론인들과는 달리 취재나 보도 윤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흥미롭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퍼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전통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해독 능력에 방점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조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콘텐츠 생산·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에 더욱 강조점을 둔다.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 및 파급은 또한 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만들어지는 '정보 과잉 생산'에 일조한다. 물론 현재의 정보 홍수 상황을 일반인의 정보 생산 확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낚시성기사·어뷰징·광고성기사

인터넷은 수용자의 정보 생산만 손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포함한 전문적 콘텐츠 생산조직의 수 자체를 늘려놓았다. 소수의 생산자가 소비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던 과거에 비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훨씬 민주적이고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일반인의 생산 참여는 기존 콘텐츠의 문법을 벗어난 참신한 접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정적 콘텐츠 양산 및 하향평준화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양적 증가에 부합할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한정된 콘텐츠만 생산되던 과거에 비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



이 사실이다. 문제는 과거보다 더 생산되는 콘텐츠 중 상당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데 있다.

언론사 같은 전문 콘텐츠 생산조직이라고 해서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클릭 유도를 위해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극적 제목을 붙이는 ‘뉘시성’ 기사, 지배적인 온라인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포털에서 트래픽을 높일 목적으로 언론사들이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어뷰징’, 특정 기업이나 정부 조직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주는 ‘광고성’ 기사 등이 폐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애초에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성이나 객관성 등은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보다는 덜한 경우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일반적인 기사들도 지나친 속도 경쟁으로 인해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오보에 대한 정정 자체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사후에 틀린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하거나 슬그머니 기사를 삭제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쉽게 고쳐지기는 어렵다.

작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짜뉴스(fakenews)’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 유형인 뉴스의 형식을 차용해 거짓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유형이다. 가짜뉴스는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위 사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의 일종이다. 이러한 디스인포메이션은 루머, 지라시 등의 형태로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접한 사람들 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유명 언론사와 비슷한 인터넷 주소로 가짜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등 명백히 뉴스처럼 보이는 것을 의도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가짜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이 주로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들 간에 전달되면서 파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등의 해외사례에서 가짜뉴스는 뉴스나 언론 사라는 ‘형식(format)의 신뢰도’를 오·남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가짜뉴스는 이용자 개인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에 기반한 ‘전달자 신뢰도’에 기생하는 형국인 것이다.

### 콘텐츠 분별 능력이라는 면역력 길러야

가짜뉴스를 비롯한 디스인포메이션, 그 외에 앞서 소개 했던 여러 유형의 품질 낮은 미디어 콘텐츠는 수없이 많이 생산·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디어 이용 자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단순 회피’다. 이는 저급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비유하자면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출을 극도로 줄이거나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지만 그다지 권장할만하지도 않다. 현직 교사이면서 지적 자기방어를 위한 매



뉴얼을 주제로 최근에 책을 출간한 소피마(Mazet, 2015/2016)가 지적했듯이, 미디어 생태계에 유해한 콘텐츠가 상당량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 전부를 아무 생각 없이 덩석 믿고 받아들이는 분별 없는 행동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만큼 어리석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유해하거나 품질 낮은 콘텐츠를 잘 가려내서 그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콘텐츠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누군가가 사전에 콘텐츠의 품질을 평가해서 이것은 봐도 괜찮고 저것은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침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비유하자면, 특정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며, 설사 그 수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미디어 이용자인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지침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데 있다(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많은 환경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했기에 이용 가능한 콘텐츠 양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더구나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았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방식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며 스마트

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개인이 오롯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깨어 있는 내내 이를 접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개인이 노출되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관해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지도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된 것이다. 결국 저렴한 콘텐츠를 가려내고,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 개개인이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분별력은 여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 즉 면역력을 기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역량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은 곧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분별력은 단순히 저렴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인 동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다.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일부 프리미엄 정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상에 넘쳐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관건은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중 전자, 즉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한다. 효율적 정보 검색, 정보 탐색 시 유의 사항 등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 교육(MIE: Media In Education)에서 많이 다뤄온 학습 주제이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청소년 세대에게는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과업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콘텐츠의 품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정보 품질 평가는 정보 탐색과는 다르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과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이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을 드러내는 핵심 지점이다. 20세기 교육은 교수자(교사, 교수, 강사 등)가 특정한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에 중점이 있었다. 즉, 지식이나 이론, 법칙, 원리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인 ‘콘텐츠 교육’에 해당했다.

물론 고난도의 지식·정보의 경우 여전히 교수자의 해설이나 지도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부 교육 내용을 제외한 각종 데이터, 정보, 단순 지식 등은 일터상에 널려 있으며 약간의 노력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인재상이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하는지를 아는가가 핵심적인 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학습 시키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형 콘텐츠 교육 모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21세기형 교육 모델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콘텐츠 교육보다는 ‘방법론’ 교육에 가깝다.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작동 원리, 콘텐츠 생산 과정, 미디어 생태계에 관련된 핵심 용어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지식적인 부분들은 있다.

그런데 그중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과 적절한 활용 능력은 짧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사례 및 학습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체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앞서 살펴본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WNYC@On The Media 채널의 'Breaking News Consumer's Handbook>, <Facebook의 'Tips to Spot False News'> 참조)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지침서를 보급한다고 해서 가짜뉴스, 더 넓게는 저급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금방 생기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학위과정 중에 대개 연구방법론 수업을 필수로 수강한다. 이 수업에서는 변인, 척도, 신뢰도, 타당도 등 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 설정, 연구 방법 설계와 같은 실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습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가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론 수업에서 배우고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이론 및 세미나 수업에서 연구 논문 내지 연구 계획서 쓰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일회성이나 단기적 교육으로는 제대로 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교급과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장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익혀야 하는 분야다. 꼭 독립된 교과



가 아니더라도 여러 관련 과목(국어과, 사회과 등)에서 미디어 활용 교육을 도입하고, 앞서 기술한 21세기형 교육 모델, 즉 스스로 적절한 콘텐츠를 찾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방향의 교육 방식을 채택한다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계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 정보복지의 첫걸음

현대 사회는 흔히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사회'로 불린다.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의 과잉 생산 및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정보 분별력을 갖춰 고품질 정보를 가려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그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정보 복지'의 다른 이름이다. 정보복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정보복지를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고품질 정보를 누리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서, 품질 높은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정보복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앞서 논의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에 대한 평가, 이해, 활용과 관련된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좁게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 능력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미디어(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 2017년 여름, 창간호에 실린 글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10가지 방법

- 1 비판적으로 헤드라인 보기
  - 2 인터넷 주소(URL) 자세히 살펴보기
  - 3 자료의 출처 확인하기
  - 4 문법적 오류 확인하기(맞춤법, 어색한 문단)
  - 5 주의 깊게 사진 보기
  - 6 날짜 확인하기
  - 7 논거 확인하기
  - 8 관련 보도 찾아보기
  - 9 풍자 또는 해학과 구분하기
  - 10 의도적인 가짜뉴스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Facebook의 'Tips to Spot False News'

#### 참고

Johnson, C. (2012). The information diet. California : O Reilly Media Inc.  
 Mazet, S. (2015). Manuel d'autodéfense intellectuelle. 배유선(역)(2016).  
 『너희 정말, 아무 말이나 다 믿는구나 : 지적 자기방어를 위한 매뉴얼』 뿌리와이파리.

#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기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가짜뉴스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모든 것은 생명 주기를 갖는다. 뉴스도 예외가 아니다. 로마의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에서 보듯, 최초의 뉴스는 원로원이란 권력기관을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역사에서 뉴스가 다시 부각된 때는 렐라치온(Relation)과 아비소(Aviso)<sup>1)</sup> 등이 발간된 17세기 초반이었다. 인간의 이성이 억압되고 모든 것을 신과 사제가 결정했던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럽 대중은 일종의 ‘문맹’ 상태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뉴스’ 덕분에 이 암흑시대가 끝이 났다.

1439년에 소개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이를 이용한 성경 인쇄는 교황과 성직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깬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요구할 당시 가장 먼저 했던 것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지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로마와 그리스시대를 복원하자’는 의미를 가진 16세기의 르네상스와 ‘빛을 밝히다’는 의미를 가진 17세기 계몽주의의 본질 역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편견이나 다른 사람의 지도에 의한 왜곡 없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미성숙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기독교 집단은 당연히 저항했다. 1559년 교황청은 종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련의 금서목록을 발표했다. 1633년에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국민 주권을 주장했던 존 로크,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등의 저작은 모두 차단당했다. 1662년에는 ‘인쇄허가법’이 등장했지만 지식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1891년 미국의 수정헌법을 통해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시대 정신이 자리를 잡았고 뉴스는 그 이후 전달수단(Medium), 형식(Format)과 내용(Content)의 확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뉴스 리터러시의 필요성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뉴스 리터러시’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와 그 생산물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 리터러시 등과 구분없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프랑스의 클레미(CLEMI)와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유네스코를 비롯해 캐나다의 ‘미디어 스마트(Media Smarts)’, 미국의 ‘디지털 시티즌(Digital Citizen)’은 모두 이런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등장 배경, 주요 이해관계자 및 목표를 고려할 때 ‘뉴스 리터러시’만이 갖는 차이점이 있다. 뉴스는 살아 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불변의 모습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전달하는 그 무엇을 뉴스라고 하거나, 의견이 아닌 사실만이라고 하거나, 또는 텍스트로 된 것으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본질적으로 뉴스는 인간이 주체를 선언하는 데 있어, 세상에 개입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조직하기 위해, 미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 온 집단 창작물이다. 해방(Emancipation), 참여(Engagement)와 확장



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다. 공적인 자산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장려하고,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전반에 퍼져 있는 혈관, 감각기관과 신경망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 전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전직 언론인으로 뉴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하워드 슈나이더 교수는 2005년 대학에 부임한 이후 이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다. 그는 학생들이 잘 된 뉴스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언론사가 전달하는 것을 무조건 믿거나, 아예 뉴스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미국 최초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News Literacy)'는 이렇게 태어났다. 뉴스 리터러시 센터는 "뉴스와 선전, 뉴스와 의견, 공정과 편견, 주장과 확인, 실증과 추론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에서 이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뉴스'에 특화된 교육은 그 이후 저널리스트, 언론사 및 언론 관련 공익 기관 등의 주도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News Literacy Project)'와 '트러스트 프로젝트(The Trust Project)' 등으로 발전했으며 저널리즘 대학(원)의 정규 과목으로 발전했다. 방송영상, 광고, 영화 및 콘텐츠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논란이 된 '가짜뉴스'는 이 문제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계기였다. 2017년 1월 페이스북은 저널리즘 프로젝트(Journalism Project)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확산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뉴욕시립대 저널리즘 대학원, 포드재단, 민주주의 재단 등과 공동으로 '진실한 뉴스 이니셔티브(News

Integrity Initiative)'를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통과된 '디지털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터넷 안전'과 관련한 법안에서 밝힌 목적도 "정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sup>2)</sup>

그 밖에 국제펜클럽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펜아메리카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가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뉴스 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한국형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과제

뉴스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 왔다. 권력집단이 무슨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없고,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했다. 역사적 현장에는 항상 뉴스가 있었고, 뉴스로 인해 권력질서는 영향을 받았으며, 치열한 '투쟁'을 동반했다. 그리고 이때 뉴스는 '정보 리터러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지극히 정치적이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듬어지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지식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주로 다루는 콘텐츠와 달리 허구가 아닌 진실에 관한 것으로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한다는 점도 다르다. 뉴스의 현실적 지위도 달라졌다. 뉴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뉴스 접근이 자유롭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뉴스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통신망이나 도로망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책임은 각자가 진다. 법을 제대로 몰라서 당하는 불



이익이 구제받지 못하는 것처럼 ‘뉴스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당연시된다. 그러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를 어떻게 찾고, 뉴스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잘못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캐나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도하는 국가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비판적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자각했기 때문이다. 독특한 뉴스 환경을 가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간 뉴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뉴스에 의해 통제되기도 했다. 지금은 뉴스 과잉을 겪고 있다. 뉴스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뉴스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뉴스 이용자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뉴스 교육을 주도하는 곳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은 뉴스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뉴스는 무엇인지, 안정적으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뉴스 활용 정도에 따른 격차(News Divide)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뉴스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News Rights)와 같은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미디어교육과 달리 체계적이고 명확한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른 리터러시와 차별화된 한국형 ‘뉴스 리터러시’는 이 공백을 채우는 첫 단주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글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 1) 아비소와 웰라치온은 1609년 독일 볼펜 뷔펠, 스트라스부르 등에서 발행했으며 세계 최초의 주간 인쇄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 2) 법안의 정식 명칭은 Concerning digital citizenship, media literacy, and internet safety’로 SB (State Bill)5449다.
- 3) 문학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려는 국제적인 문학가 단체이다.
- 4) “Faking News: Fraudulent news and the fight for truth”. PEN America, October 12, 2017.)



# <뉴스읽기 뉴스일기> 작성하는 법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틀)

확인사항	질문
분석	<b>생산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직업, 역할 등) 인가요?</li> <li>이 뉴스의 발행기관(언론사 등)은 어디인가요?</li> <li>생산자는 왜 이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뉴스가치)</li> </ul>
	<b>구성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뉴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li> <li>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가요?</li> <li>이 뉴스에는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li> <li>이 뉴스는 6하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나요?</li> </ul>
	<b>의미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li> <li>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li> <li>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li> <li>이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나요?</li> </ul>
	<b>이용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li> <li>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li> <li>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나요? 싶다면 왜,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요?</li> </ul>
평가	<b>신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자는 믿을만한가요? (작성자 이름, 소속 등 명시)</li> <li>취재원은 믿을만한가요? (취재원 명시, 취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li> <li>인용된 자료가 믿을만한가요? (검증된 자료 등)</li> <li>취재 과정은 믿을만한가요? (직접 취재, 사실관계 확인)</li> <li>작성자(언론사)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나요?</li> <li>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있나요?</li> </ul>
	<b>완전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했나요?</li> <li>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li> <li>사건의 배경, 원인, 대안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li> <li>한 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했나요?</li> <li>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나요?</li> <li>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나요?</li> </ul>
	<b>유용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li> <li>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li> <li>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나요?</li> <li>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li> <li>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li> </ul>



# 어린이를 위한

#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 01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 1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2 같은 내용이 미디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 3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든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 4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 5 미디어 속에 숨겨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 02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2 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했는지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 3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4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됐는지 고민해 보세요.

## 03 정보를 판별할 수 있나요?

- 1 자료가 믿을 만한지 살펴보세요.
- 2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3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 4 정보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04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 1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 2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 3 스마트폰은 내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4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 안 돼요.

## 05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올바른 대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2 비속어나 은어, 욕을 사용하지 마세요.
- 3 대화 창에서 공유한 여러가지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4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06 댓글을 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 2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댓글을 쓸 때 확인하세요.
- 3 댓글을 달 때 대화할 때처럼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07 온라인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연령에 맞는 게임인지 확인해 보세요.
- 2 제한된 시간보다는 미션을 기준으로 게임을 중요해 보세요.
- 3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 4 게임이용시 비용이 발생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08 유튜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나의 방문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 2 나의 연령에 맞는 영상인지 판단해 보세요.
- 3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 4 부적절한 콘텐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신고하세요.

## 09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저자(제작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 2 공정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뤄진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알아보세요.
- 3 다운로드로서 윤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해요.
- 4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10 1인 방송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 2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세요.
- 3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 4 나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 5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 박우연 선생님(금부초등학교)

### 1. 뉴스읽기의 “맛” 특

#### <뉴스와 가까워지기>

- 어른용 신문은 어려워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신문(일간지)으로 뉴스읽기를 시작해보고, 고학년이 되면 차츰 어른 신문도 읽어봐요.
- 뉴스를 띄엄띄엄이 아닌 꼬박꼬박,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요.

#### <뉴스 맛보기>

- 1면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쪽 훑어봐요.
- 다양한 뉴스 중에서 내 눈에 띄는 주제, 관심 있는 뉴스를 먼저 살펴봐요.
- 반찬을 가려먹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처럼 뉴스 편식도 NO! NO! 다양한 주제를 접해봐요.
- 사진이나 만화, 광고 등도 많은 것을 알려주니 놓치지 않아요.

#### <뉴스 깊이 파헤치기>

- 하나의 뉴스를 6하 원칙에 따라 머릿속으로 정리해봐요.
- 뉴스를 읽을 때, KWL, 즉 K(knowledge:이미 알고 있는 점)-W(why:궁금한 점)-L(learn:새롭게 배운 점) 등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정해 표시하며 읽어요.
- 처음 들어보거나, 어려운 낱말을 만났나요? 그 낱말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뉴스 내용을 통해 먼저 예상해봐요. 사전이나 검색을 통해 뜻을 알아본 후, 나만의 낱말사전에 하나씩 추가하면 어휘력이 많이 길러지겠죠?

#### <뉴스 함께 나누기>

- '뉴스 읽어줄게, 잘 들어봐~'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줘요. 또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 하나의 뉴스를 정해 꼼꼼히 읽고 따지면서 또 읽어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꿀꺽! 하기 위해서 읽은 내용을 보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요.
- 사실 같은 경우, 뉴스의 성격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잘 따져보고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친구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봐요.

#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 박우연 선생님(금부초등학교)

### 2. 뉴스일기의 “맛” 특

#### <뉴스일기, 너를 알고 싶어!>

- 일기는 다들 알죠? 뉴스와 일기의 만남, 뉴스일기도 어렵지 않아요. 뉴스를 읽고 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뉴스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써요.
- 일기를 쓸 때, 하루 일과 중에서 평소와 별다른 일이 없어 쓸 주제가 없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뉴스일기는 그 고민을 해결해주죠. 오히려 쓸 거리가 너무 많아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 하나의 주제를 정해 '주제 뉴스일기'를 쓸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뉴스들을 모아 주제 스크랩을 하고 일기를 쓰는 거죠. 요리사가 꿈이면 요리와 관련된 뉴스로 요리 관련 일기를, 축구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로 일기를 쓸 수 있어요.

#### <뉴스일기를 맛있게 남남>

- 뉴스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만의 알짜! 뉴스 이야기보따리'인 뉴스일기장에 스크랩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거리 등을 풀어써요.
- 나아가 뉴스 주인공에게 상장 주기 및 인터뷰하기,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야기 상상하기, 뉴스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 및 다짐하는 뉴스 생활 일기 쓰기, 봉사 활동과 관련한 뉴스를 읽은 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기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어요.
- 뉴스 내용을 그림이나 만화로 나타내기, 동시에 표현하기, 뉴스 사진 말 주머니 채우기 등 줄글이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 다양하게 내 생각을 뽐낼 수 있어요.

#### <뉴스일기는 나의 생활>

- 뉴스와 나를 연결짓는 활동은 참 중요해요. 뉴스 내용을 나의 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에 꼬리물기를 해 봐요.
- 뉴스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뉴스일기장에 정리할 수 있어요.

# 청소년을 위한

#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01**  
미디어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어떤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생각해요.
- 미디어 콘텐츠를 누구와 공유하고 싶은지 생각해요.
- 콘텐츠 생산자는 믿음직한 사람인지 생각해요.
- 양쪽의 주장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 미디어 속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요.

**02**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 대중매체를 통해 미에 대한 선망과 모방심리를 심어줄 수 있어요.
-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평가 권리가 있어요.
- 이상적인 외모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미디어는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요.
- 미디어 메시지가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기법을 활용했는지 생각해요.

**03**  
미디어 속 '정보 검색'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음을 이해해요.
- 검색어는 찾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 단어를 선택하세요.
- 정보를 검색할 때 다양한 검색 기법을 숙지한 후에 검색하세요.
- 활용한 미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요.

**04**  
미디어 속 정보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해요.
-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이해해요.
- 다양한 미디어 정보자원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 검색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공유해요.
-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요.

**05**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면 안구 질환이나 거북목 증후군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스마트폰 사용 '중요시간' 알람을 정해 '수면골든 타임'을 지켜주세요.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 보며 대화해 보세요.
-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켜요.
- 보행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가방에 넣어요.

**06**  
온라인 게임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이해해요.
- 게임중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시간, 유형 등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요.
- 게임 거래 전 상대방 전화와 계좌번호를 사이버 카페에서 조회하여 이전 피해 신고내역을 확인하세요.

**07**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따라서 내용과 거짓 정보를 올려도 검증 없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유료서비스 구입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요.
- 1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해보세요.

**08**  
가짜뉴스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 뉴스의 출처를 확인해요.
- 뉴스의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확인해요.
- 뉴스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실제 맞는지 판단해요.
- 뉴스가 제작된 날짜를 확인하여 오래된 뉴스를 재탕하거나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해요.
- 상반된 입장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해요.

**09**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요.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도록 해요.
- 상대방이 싫어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지 않아요.
- 인터넷에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요.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아요.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요.
-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 PC방 등에서 인터넷 로그인 시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아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세요.

**11**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 저작권법상 특정 영화 포스터를 비평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면 저작권법에 위반돼요.
- 버스킹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 침해라는 점을 이해해요.
-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CCL 마크)을 미리 파악해요.
- 내가 만든 미디어 저작물에 CCL을 표시해요.

# 청소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 심유석 선생님(이현중학교)

### <적절한 뉴스 검색>

- 온라인 매체 : 주요 언론사 뉴스 분석 사이트 혹은 포털 사이트 내 뉴스 기사를 활용해보요.
- 오프라인 매체 : 종이 신문 혹은 월간지,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보세요.

### <미디어 리터러시 생각 정리 및 공유 방법>

- 뉴스 검색 후 기사를 읽고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하세요. (기사 스크랩과 소감문을 작성하는 활동지를 함께 활용합니다.)
- 영상이 지원되는 기사 또는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뉴스를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각자 수업 시간에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를 선택한 이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 뉴스 발표 후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한가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탐색하고 공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발표력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 많은 친구들이 모여 뉴스를 발표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일기 작성법>

-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 기사를 읽고,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 만평, 카드 뉴스, 4컷 만화를 활용해서 콘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추측해보기, 새로운 제목으로 바꿔 보기, 4컷 만화 이어 그리기 등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 기사를 읽고 Q&A나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 평소 관심 있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고 일기를 쓰는 것도 꿈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 20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01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문 기사, TV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등과 같은 미디어 메시지는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딩을 건축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도면에 따라 만드는 것처럼 미디어 메시지 역시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처럼 보이는 뉴스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02  
메시지는  
어떤 언어적  
기법이나  
설득기법을  
사용하고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신문이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이든 그 자체의 독특한 언어를 가집니다.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며, 카메라가 피사체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음향과 시각 언어는 인간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요소로, 미디어 경험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잊게 만듭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기법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3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왜 다르게  
인식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미디어 메시지를 접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미디어 메시지와 상호작용 합니다. 누군가는 특정 메시지를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미디어 텍스트에 연령, 성, 교육, 문화적 기반 등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경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04  
이 메시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미디어 메시지는 속성상 그 내용들이 구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텍스트 안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든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메시지를 구성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05  
이 메시지는  
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미디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워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익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이익을 동시에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동기들이 반드시 좋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스무고개로 넘는 허위정보 판별 가이드

- 1 원래의 정보를 누가 만들었나요?
- 2 메시지를 만든 곳은 신뢰할 만한 사람 혹은 기관인가요?
- 3 웹사이트 주소나 URL은 정확한가요?
- 4 콘텐츠나 게시물에 나오는 출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가요?
- 5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출처는 정확한가요?
- 6 나에게 SNS 정보를 보내주거나 나를 위해 포스트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 7 지금 보고 있는 게시물을 다른 일반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나요?
- 8 콘텐츠나 게시물에서 철자나 맞춤법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나요?
- 9 콘텐츠나 게시물이 약물이나 대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 10 해당 정보가 게시된 날짜가 최근 것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것인가요?
- 11 사진이나 이미지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나요?
- 12 사진이나 이미지는 원본인가요 아니면 변형된 것인가요?
- 13 격한 분노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인 내용인가요?
- 14 정보나 게시물에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 15 주장이나 관점은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 16 주장이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 17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내용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있는가요?
- 18 해당 게시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 19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상업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 20 내 스스로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 성인을 위한

#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 장두원 선생님(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찾아가는 대학> 진로부문 강사)

### <뉴스 읽는 방법>

우선 오피니언면의 사실이나 칼럼은 사회 찬반논란이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성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신문사의 시각에 따라 사회를 보는 다양한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신문 혹은 뉴스의 칼럼과 비교해 보세요. 그 후 그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핵심 내용을 스크랩하며 자료를 찾고, 팩트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주요 이슈 기사는 주로 1면을 비롯해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5,7면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제면 기사는 세계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 <뉴스 스크랩 방법>

먼저 신문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가위로 자른 뒤, 포스트잇이나 A4 노트에 기사 출처, 내용 요약 및 느낌, 중요 정보를 메모합니다. 그 후, 메모한 것을 기사 뒷면에 붙여 파일 바인더에 끼웁니다. 2~3개월 꾸준히 스크랩한 후 같은 종류의 기사끼리 분류합니다. 분류한 기사들은 목차별로 파일 바인더에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길들이면 논술문이나 글쓰기의 기본 요건인 명료성, 정확성, 간결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글을 쓸 때 항상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일기 작성법>

- 미디어 리터러시 계간지, 월간 신문과 방송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달 발행하거나 계간지로 발행되는 잡지에 글들 가운데, 인상 깊은 글, 미디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세요. 또, 한 주의 신문이나 뉴스를 본 후, 내가 생각하는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과 이유를 기록해보세요. 정리한 뉴스를 바탕으로 메신저나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과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친구, 가족과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한 내용, 생각을 나누는 내용을 일기에 써보세요.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작성한 뉴스일기에 서로 댓글을 남겨주는 활동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공감되는 부분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그 근거를 적어보세요.
- 인물의 경우, 인터뷰 기사들을 읽고 그에 대해 배워야 할 점과 얻은 교훈에 대해 일기문을 작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과 후를 기록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 실버세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 01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 1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세요.
- 2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산에 위험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 3 SNS(소셜미디어)에는 남이 봐도 되는 것만 올리세요.

## 02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용하려면?

- 1 건강한 몸 : 눈, 목, 손목, 두뇌 건강에 유의하세요.
- 2 건강한 마음 : SNS(소셜미디어) 속 모습은 '보여주려고 올린 장면'임을 기억하세요.
- 3 건강한 관계 : 사람들과 만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 03 미디어를 매너 있게 이용하려면?

- 1 대화내용을 옮기지 마세요.
- 2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하세요.
- 3 네티켓 10계명을 지키세요.

## 04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려면?

- 1 TPO(Time-시간, Place-장소, Occasion-상황)를 가려 사용하세요.
- 2 짝하는 사람의 초상권을 존중하세요.
- 3 사실을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니 조심하세요.

## 05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면?

- 1 혈연, 학연 말고 커뮤니케이션 연줄을 만드세요.
- 2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SNS(소셜미디어)로 시작하세요.

## 06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하죠?

- 1 뉴스나 정보, 메시지는 '만든 것'임을 잊지 마세요.
- 2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 3 "OO 카더라"라며 퍼지는 정보를 선뜻 믿지 마세요.
- 4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 5 뉴스 편식을 피하려면 자동 추천 영상 대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07 댓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 1 내가 쓴 댓글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예의와 품격을 갖춰 댓글을 쓰세요.
- 2 속도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천천히 확인하고 댓글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 3 악성댓글을 쓰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08 남이 만든 콘텐츠(음악, 영상, 그림 등)를 이용·공유할 때 어떻게 하죠?

- 1 대부분의 창작물 콘텐츠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 2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 베토벤과 피카소는 무료입니다.
- 3 사진 제공 사이트를 이용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라이선스, 캡처, 이름표시)
- 4 내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할 만하면 공유하세요.

### < 네티즌 10계명 >

버지니아 셰어의 10가지 원칙*	현재에 적용
① 인간임을 기억하라.	상대는 나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말에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저 쪽에 있습니다.
②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사이버 공간의 윤리기준은 실생활과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얼굴 마주보며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실제로 못하는 말은 SNS에서도 하지 마세요.
③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가입한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가입한 모임의 특성에 맞게 말하고, 토론하고, 반응하세요.
④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정보를 올릴 때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남에게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⑤ 온라인에서도 교양인으로 보여라.	SNS에 올린 글과 이미지로도 그 사람의 성격, 생각, 윤리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⑥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전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감사를 표하세요.
⑦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SNS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지구 저편까지 전달됩니다. 말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스마트기기 전원을 꺼도 됩니다.
⑧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남의 일정, 동정, 사진첩을 시시콜콜 파고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합니다.
⑨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트위터 같은 SNS는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유명한 또는 권력자라면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은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됩니다.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버지니아 셰어(Virginia Shea)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 핵심원칙(The Rule of Netiquette)

# 학부모를 위한

#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 미디어 이해

- 1 미디어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 ▶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작동하는 원리와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 2 아이들이 친숙한 미디어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 ▶ 광고는 이익창출이라는 상업적 속성을 가집니다.
  - ▶ 애니메이션에서 전달하려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 ▶ 웹툰은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뜻하며 독특한 심미적 형식을 가집니다.
  - ▶ 뉴스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과 이데올로기 및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미디어 이용

- 3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허용시기를 고민해 보세요.**
  - ▶ 만 2세 이하 : 언어인지능력 발달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만 3세 이상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 ▶ 만 2~6세 이하 : 이용 규칙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습관을 잡아줍니다.
  - ▶ 초등학생 이상 : 이용 약속을 스스로 정하고 과의존을 점검합니다.
- 4 미디어 활용 연령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 ▶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별 등급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게임은 제품마다 사용가능 연령이 다르고 섀다운제 등 제한이 있습니다.
- 5 공교육에서 지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가져주세요.**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을 성취기준에 맞추어 교육합니다.
  - ▶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미디어 일기 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 미디어 소비

- 6 미디어의 순기능을 알고 사용하게 해 주세요.**
  - ▶ 미디어의 순기능에는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유산의 전수, 오락 기능이 있습니다.
  - ▶ 다양한 SNS를 사용할 때 정신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7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로 인해 세뇌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 보여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등 비판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 ▶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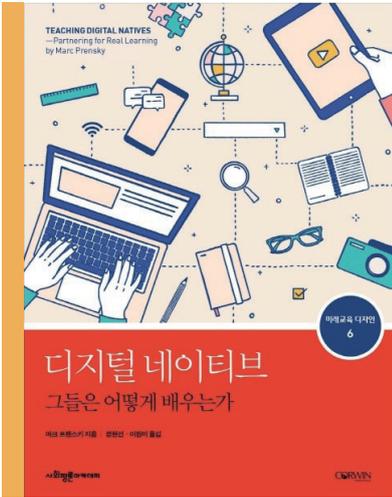


## 미디어 생산

- 8 미디어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을 알고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생산하도록 지도합니다.
  - ▶ 가짜뉴스나 낚시성 기사를 만들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 타인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에 주의하도록 지도합니다.
- 9 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 ▶ 저작권은 뉴스, 그림, 사진, 일기, UCC 등 모든 저작물에 주어집니다.
  - ▶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0 미디어로 미래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 미디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으며 미래 유망직업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상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유튜브 등 미디어와 관계된 직업 등을 통해 직업윤리를 생각하게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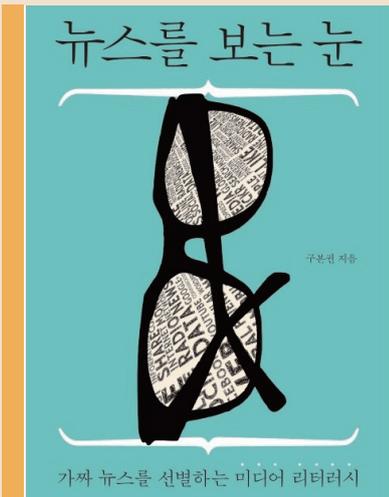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글 마크 프렌스키 / 정현선·이원미 옮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래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의 저서.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대된 반면, 정작 이들을 가르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이 책은 학생과 ‘파트너가 돼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인 실행 지침과 사례로 풀어내고 있다.



### 뉴스를 보는 눈

글 구본권

저자가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 기자,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농축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언론의 본질과 시민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책이다. 언론이 무엇이고 좋은 보도란 어떤 것인지, 언론의 힘은 어디까지이며 특권을 이용해 비뚤어진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짚는다. 이를 종합해, 올바른 언론과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안내한다.



### 생각이 크는 인문학

글 김준경 / 그림 이진아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이 시급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할까? 미디어오늘에서 미디어의 변화와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으로 취재해 온 김준경 기자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디지털 시민의 소양을 이야기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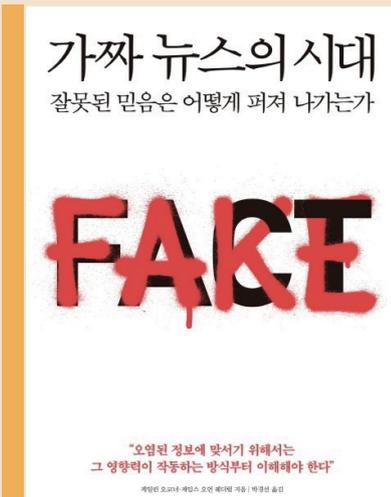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 뉴스 믿어도 될까?

글 구본권

미디어 연구자이자 일간지 기자로 25년 넘게 일해온 언론인이 청소년용으로 쓴 미디어 리터러시 책이다.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가짜 정보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현명한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디어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뉴스와 언론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어내는 데 필요한 역량을 다뤘다.



### 가짜뉴스의 시대-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글 케일린 오코너-제임스 오언 웨더럴 / 박경선 옮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의 시대, 거짓 정보가 우리 인간의 신념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는지 다룬 책이다. 저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가 누구와 알고 지내는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오염된 진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어린이를 위한)

글 권혜령, 김광희, 송여주, 오은영, 이경혁, 최은옥, 홍완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초·중·고 선생님들과 미디어 전문가가 뜻을 모아 탄생한 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 스며든 뉴스, 광고, 영화, 웹툰, 게임, 인터넷, SNS, 유튜브 등 여덟 가지 미디어에 대한 풍부한 예시와 설명을 통해 미디어의 특징을 확실히 전달하며,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소통 방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본문 뒤에 덧붙인 다양한 활동 문제를 풀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지원자 정보

이름 (개인 혹은 팀명)		소속	
지원분야		출생년도	
연락처			
주소			
지도자 (있는 경우 기입)			

## 지원서

일기장명	
주활용매체	신문 / 방송 / 언론사 / 웹사이트 / 포털 및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 /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 메신저 /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 기타 ( )
지원동기	

작성과정

일기장 소개  
(기획의도/특징)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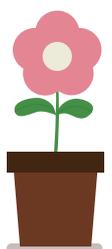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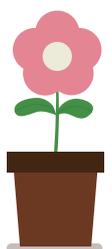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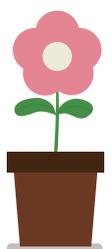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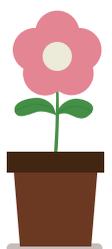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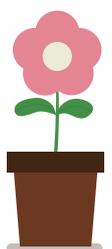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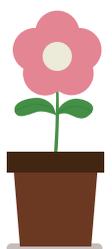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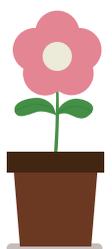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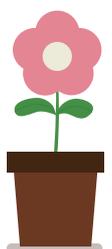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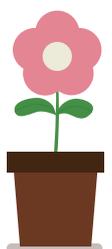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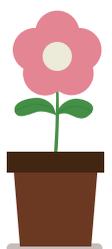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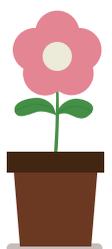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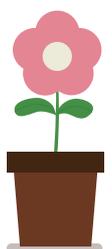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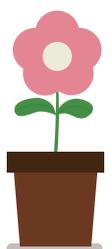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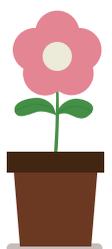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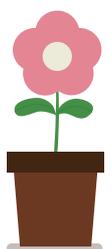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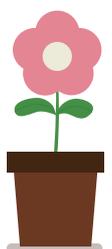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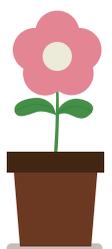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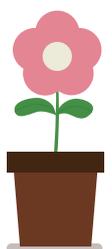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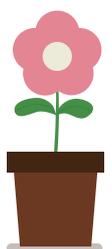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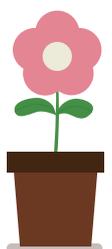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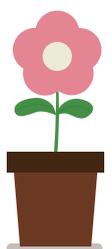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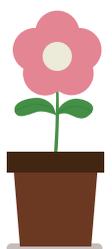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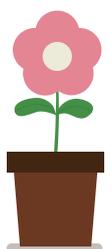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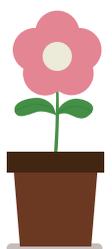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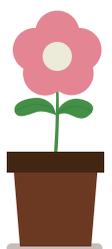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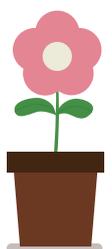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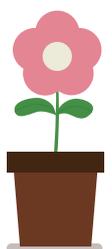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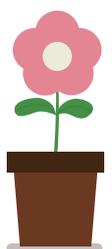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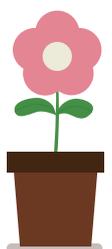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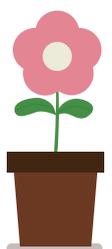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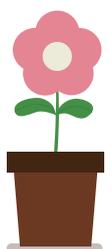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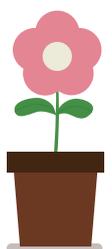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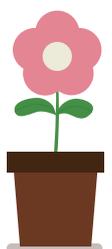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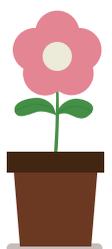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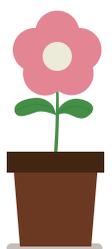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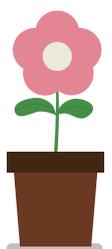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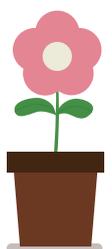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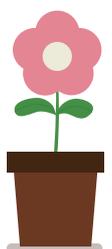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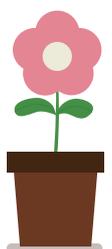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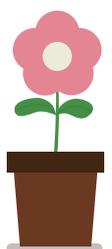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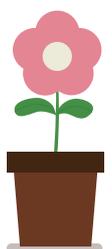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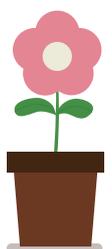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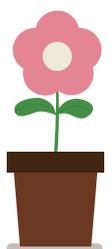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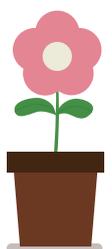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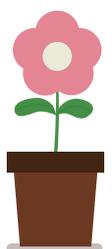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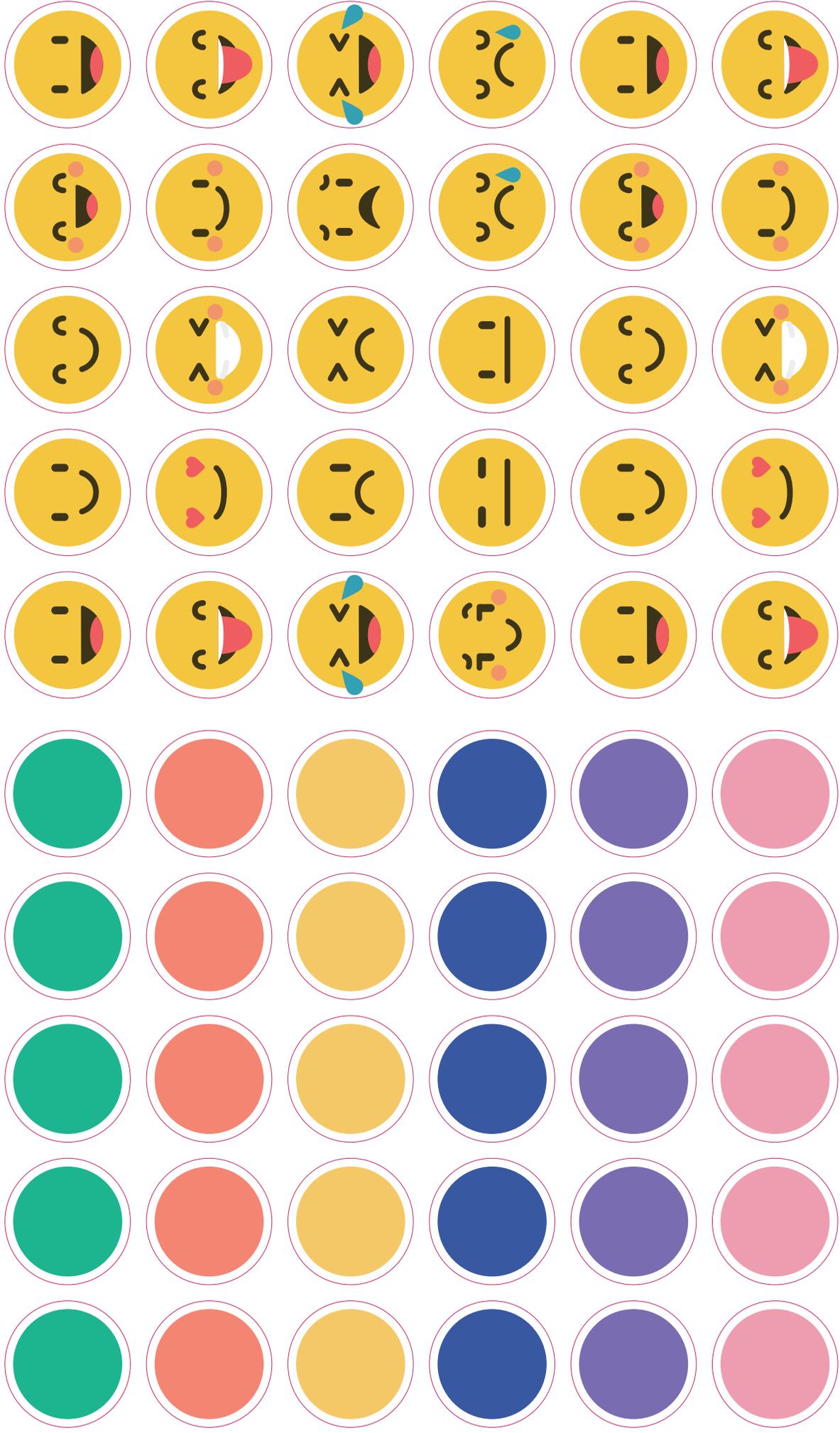
일기 제목 :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스티커를 붙여 뉴스일기를 꾸며주세요



# 스티커를 붙여 뉴스일기를 꾸며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